

보성군 “차별없는 교육복지·미래인재 양성 전폭 지원”

보성군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폭 지원에 나섰다.

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교육 복지 실현 8개 사업(11억9천만원) ▲특기 적성 지원 4개 사업(2억9천만원) ▲학력 증진 지원 5개 사업(7억4천만원) 등 17개 사업에 총 22억2천여만원의 교육 경비를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와 보성교육지원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재)보성군장학재단에서도 인재육성장학금, 전문계고 특기 지원 등 12개 사업에 6억원을 투입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 투자 효과도 두드러졌다.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 결과, 대학평가 상위 30위권 대학 및 우수학과 진학률이 2020년 7.8%에서 2021년 28.1%까지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와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

무상급식·교복구입비 등 17개 사업...22억 교육경비 투입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확대...상위권 대학 진학을 상승 효과

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한다.

교통 불편으로 통학이 어려운 관내 초·중학교 학생에게 택시비를 지원해 통학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해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와 향상된 돌봄 프로그램 제공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및 학생 특성에 맞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주말 학교 밖 방과 후 프로그램인 지역사회 연계 토요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특기 적성 계발을 통한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리더십을 갖춘 세계적(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보성영재교육원 운영 지원과 자기 주도적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을 지원한다.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지역 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영어체험교실·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통해 영어 친화적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재)보성군장학재단은 상·하반기에 보성군 미래 인재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450여명에게 4억3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장학기금에 대한 군민들

의 관심과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제4회 수기 공모전'을 개최, 장학회보 발간으로 장학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계고 특기 지원, 교육 발전 시책 장학금, 특별지정 장학금 등 7개 사업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해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철우 군수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희망 보성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2024 춘기 석전대제 봉행 곡성군은 최근 곡성향교와 옥과향교에서 춘기 석전대제를 진행했다. 석전대제는 성선 공자를 비롯한 인자, 중자, 자사자, 맹자 등 5성과 우리나라 18위 성현을 추모하고 그들의 학덕을 기리며 제를 올리는 유교적 의식으로 음력 2월과 8월의 첫째 정일(丁日)에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 향교에서 행해지는 의식을 말한다. <곡성군 제공>

광양만권경제청, 개청 20주년 기념행사

오늘 광양경제청 3층 회의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21일 대화의실 3층에서 개청 2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양경제청이 개청일(3월24일)을 맞아 지난 20년간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대내외로 알릴 광양경제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유관기

관·단체장, GFEZ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며, GFEZ 발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 영상 상영, 주요 내빈과 함께 세리머니를 개최한다.

또한 미래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광양만권 이차전지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하고, GFEZ가 이룬 성과와 비전을 알리는 백서를 발간해 광양경제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그동안 GFEZ 개발, 투자유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이 될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지난 2003년 10월 30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다음해 3월24일에 개청했다. 이후 20년간 해외 진출에 유리한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해 다양한 국내의 기업체 473개사를 유치하고, 23조원의 투자실현과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 적극행정 2년 연속 '우수기관'

담양호 도수터널 차수벽 철거 성과

담양군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문화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및 우수사례 ▲주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을 목표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해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추진한 점과 기관장의 적극행정 성과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주민들의 13년 숙원사업이었던 담양호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순창군과 긴밀히 협의해 이뤄낸 도수터널 차수벽 철거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노 군수는 "관행적인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근 기자

해빙기 취약시설 현장 합동점검 실시

순천시 31일까지 급경사지·옹벽 등 점검

순천시는 20일 "해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은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건설현장, 옹벽 등이다. 시는 최근 해빙기 고위험 집중 관리 대상 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재난부서와 시설물 소관부서, 건축·토목 분야 민간 전문가와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건설 현장, 노후 옹벽 등에 대

한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 현장 위험 구역에 대한 방호책·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공사장 지반 약화에 따른 주변 지반 침하·균열 여부 ▲옹벽의 균열·누수 및 배수로 이물질 퇴적 유무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대응 체계 등이다.

시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경우엔 적절한 응급



조치를 취한 뒤 보수·보강을 추진해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포트홀 등 해빙기 위험요소를 발견할 시 즉시 관계 기관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예찰 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고흥우주항공축제' 5월4일 팡파르

국내 유일 우주 플랫폼 나로호우주센터 일원서 개최

고흥군이 오는 5월4일부터 이틀간 나로호 우주센터 일원에서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개최한다.

20일 고흥군에 따르면 세계 13번째이자 우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 플랫폼인 나로호 우주센터 일원에서 '위대한 인류의 비상, 지구인에서 우주인으로!'라는 주제로 축제를 준비 중이다.

군은 최근 군청 팡양산홀에서 고흥군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 세부추진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주탐험의 서막',

'지구 밖 또 다른 행성', '새로운 우주의 시대'를 테마로 ▲국내 유일의 나로호 우주센터 견학 ▲우리나라 최초 위성 발사체인 나로호(KSR-III)·누리호 실물 기획 전시(1-3단 로켓·위성·페이링·엔진) ▲우주인 친구와 만나 달나라를 여행하는 우주여행 미디어아트 등이 열린다.

또한 ▲나로호·누리호 연구 성과물 등 우주과학 전시 103종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야외 과학 체험 55종, 이 밖에 우주인 무대에서 펼치는 ▲우주인 댄스 ▲우주인 카니발 ▲우주 로보 시연 등 국내 유일 우주촌인 고흥우주

항공축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구성했다.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축제도 병행 추진한다. 많은 사람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우주인 상상 그리기 대회, 우주쓰레기·우주식량 문제 해결 방안 등 다양한 우주 아이디어 대회를 연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 탐사와 항공 기술에 대한 관심·이해를 높이고 우주항공 체험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은 꿈과 희망을, 국민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군민의 스토리를 담아 인류 최초 우주촌 축제의 위상을 높였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정기명 여수시장 "세계섬박람회·COP33 유치 역량 발휘"

국동임시별관 직원 격려· 당부

여수시는 20일 "정기명 여수시장 지난 18일 국동임시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장방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명 시장은 시민소통 대표적 경로인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의 일환으로 대상을 직원까지 확대, 직원과 더욱 소통해 시장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그간 청사 분산으로 결재 등 업무처리 지연, 청사 간 직원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국동임시별관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광, 수산, 어업, 섬발전지원, 상하수도, 차량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급 이하



직원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청사 분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사항 ▲공직 내 MZ세대 증가에 따른 선·후배 공무원 간 조직 문화 변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 아이디어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정 시장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2028년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달라"며 "분정사 별관 증축을 위해 하반기에 설계 공모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격려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성군 '양액 처방서 발급서비스' 시작

장성군은 20일 "수경재배 농가 대상으로 '양액 처방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양액 처방서는 수경재배에 쓰이는 양액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이전까지는 전남농업기술원 또는 사설분석기관에 의뢰해 처방서를 받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군에서 자체 발급을 시작했다.

분석 항목은 질산, 인산, 중탄산, 미량요소 등 20개 안팎이다. 수경재배 농가가 시설재배용 원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면 군이 전용 분석기를 이용해 무료로 성분을 분석한 뒤 처방서를 발급한다.

자료의 정확성은 우수하다. 군은 수차례 타 시군과 교차 실험을 통해 분석 정확성을 검증했다.

양액 분석을 희망하는 농가는 500ml 용에 원수를 담아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과학농명팀(061-330-8439)에 제출하면 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 '농특산물홍보관' 서울에 문열었다

산수유·고로쇠 등 농특산물 가공품 64점 전시

구례군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소재한 구례학사 1층에서 농특산물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선상원·양준식 군의회의원, 유승용 영등포구의원, 이우엽 구례군 재경향우회장, 박형문 구례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례의 특산물인 산수유 건강차 시음회도 열렸다.

농특산물홍보관은 58.02㎡ 규모로 산수유, 우리 밀, 쑥부쟁이, 건 산채, 꿀, 감부각, 고로쇠, 된장, 고추장, 녹차, 황새와 우렁이 쌀 등 청정지역 구례의 우수한 농특산물 가공품 64점을 전시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서울에 마련된 농특산물홍보관은 구례의 우수한 특산물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